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2월 17일 · 제344호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컨테이너 선사, SOLAS에 선제적 대응 중비 중
2. 머스크 그룹, 글로벌 해운 불황 속 2015년 4/4분기
기에 251억 달러 손실
3. SingPost 매출,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대폭 증가
4. 인도, 항만인프라 확장 계획 발표

| 물류시장동향 |

1. 유럽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USS), 화주
들에게 비용증가 부담
2. 2016년 1월 우크라이나 레니 항 물동량 전년 대
비 36.4% 감소





물류정책 · 사업동향

컨테이너 선사, SOLAS에 선제적 대응 준비 중

- 세계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은 SOLAS(Safety of Life at Sea) 총중량검증(Verified Gross Mass, VGM) 규제에 대응하여 선제적 준비 중
 - 세계 선복량의 9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17개 주요 선사로 구성된 Ocean Carrier Equipment Management Association(OCEMA)은 2001년 9월 11일 이후부터 컨테이너 선박의 출항 24시간 이전에 적하목록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준수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OCEMA는 이러한 기술적 경험을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SOLAS 컨테이너 VGM 신고제 관련 24시간 이전 선적 화물 중량정보 제공 요구준수에 활용하고자 하고 있음
 - NYK Line의 Bill Payne 부회장은 OCEMA가 현재 24시간 이전에 어떻게 화물정보를 전달하는지와 이를 SOLAS VGM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프로세스 맵을 그리고 있다고 밝힘
- 이미 현재 수출공급사슬 내에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수출화물의 물류흐름을 방해하지 않고도 화주들이 SOLAS VGM를 준수할 수 있음
 - Bill Payne 부회장은 수출에는 많은 상업적 결정과정 및 신용장 등 다양한 절차들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현재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유용한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힘
 - 무엇보다 누구도 수출할 화물을 당일 아침에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사전적으로 생산되고 있음
 - 따라서 주요한 점은 이러한 사전정보를 활용, 화주로부터 포워드, 선사, 그리고 터미널에 이르는 VGM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선박의 적재계획 수립 이전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임
- 현재 전세계 컨테이너 선적작업은 전체 약 50%가 전자문서가 아닌 일반서류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원활한 정보전달 프로세스를 수립하지 못하면 수출물류 흐름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이미 뉴저지항, 뉴욕항 등 미국의 일부 터미널은 VGM을 전자문서 형태로 사전에 제공받지 못하면 해당 화물의 터미널 게이트 통과를 불허하겠다고 밝힘

자료 : www.joc.com, 2016.02.08.

전형모 전문연구원
051-797-4683, hmjeon@kmi.re.kr



머스크 그룹, 글로벌 해운 불황 속 2015년 4/4분기에 251억 달러 손실

- 2015년 전체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 머스크 그룹의 2015년 매출액은 약 404억 달러로 전년도의 476억 달러에서 15% 하락하였으며, EBIT는 2014년 59억 달러에서 2015년 19억 달러로 68% 감소하였음
 - 그러나 9억 2,500만 달러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흑자를 기록
 - 부문별로 검토하면, Maersk Line 13억 달러 이익, Maersk Oil 215억 달러 손실, APMT 0.7억 달러 이익, Maersk Drilling 0.8억 달러 이익, APM Shipping Services 0.4억 달러 이익 발생
- 그러나 2015년 4/4분기 실적에 대해 머스크측은 "perfect storm"에 직면하였다고 어려움 토로
 - 그룹의 2015년 4/4분기 매출액은 9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하였으며, EBIT는 전년 동기의 0.5억 달러 흑자에서 2015년 4/4분기에는 27억 달러 손실로 전환되었고, 25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
 - APMT, Maersk Drilling, APM Shipping Services에서는 흑자가 발생하였으나, Maersk Line에서 1억 8,200만 달러와 Maersk Oil에서 무려 25억 2,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Maersk Oil의 대규모 손실은 앙골라, 브라질의 심해자산 손상과 카자흐스탄, 쿠르드자 치구 및 영국의 생애주기가 짧은 생산 자산에 기인
 - 컨테이너 해상운송을 맡고 있는 Maersk Line은 수요감소 및 운임하락으로, 저유가 등으로 인한 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5년 4/4분기에 손실을 기록하였음

Maersk 그룹 2015년 재무 실적							
구분 (단위: 백만 USD)	4Q 2015	4Q 2014	비고	FY 2015	FY 2014	비고	
매출액	그룹 전체	9,125	11,715	-22%	40,438	47,569	-15%
	Maersk Line	5,914	6,912	-14%	23,729	27,351	-13%
	Maersk Oil	1,302	1,843	-29%	5,639	8,737	-35%
	APMT	1,025	1,124	-9%	4,240	4,455	-5%
	Maersk Drilling	617	635	-3%	2,517	2,102	20%
	APM Shipping Services	1,220	1,455	-16%	5,080	5,926	-14%
순이익	그룹 전체	(2,511)	189	-	925	5,195	-82%
	Maersk Line	(182)	655	-	1,302	2,431	-46%
	Maersk Oil	(2,523)	(32)	-	(2,146)	(861)	-
	APMT	128	117	9%	654	900	-27%
	Maersk Drilling	181	53	242%	751	478	57%
	APM Shipping Services	60	(454)	-	446	(230)	-

* 그룹 전체의 재무실적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므로, 부문별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APM Shipping Services에는 Maersk Tankers, Maersk Supply Service, Svitzer, Damco 등 포함

자료 : <http://investor.maersk.com/financials.cfm>, 2015.2.16.

송주미 전문연구원
051-797-4773, jmsong@kmi.re.kr



SingPost 매출,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대폭 증가

- 싱가포르 우정국(Singapore Post)은 지난 해 4월부터 10월까지 1억 190만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했으며, 이중 40%는 싱가포르 이외 지역에서 발생했음
 - 전자상거래와 물류 부문을 꾸준히 확장시킨 결과 지난해 9월까지의 매출은 전년대비 24.3% 증가한 5억 9,4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영업이익은 18.5% 증가한 1억 2,560만 달러를 기록했음
 - SingPost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성장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국제 배송의 증가와 새로운 자회사와의 우편부문 합병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SingPost는 최근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TradeGlobal Holdings와 Jagged Peak를 인수한 바 있음
 - SingPost의 부사장 Mervyn Lim씨는 “지난 몇 년간의 투자로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어 24%의 매출성장과 18%의 순이익률을 달성했다”고 언급했음
- 전통 사업인 국내 우편 사업을 뛰어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부문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SingPost의 매출패턴도 변화하고 있음
 - SingPost의 전자상거래 관련 매출은 그룹 전체 매출의 33.4%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7.1%가 증가한 것임
 - 또한 지난해 9월까지의 해외 매출은 그룹 매출의 41.9%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 해외 매출 비중 31%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지난 달 SingPost는 국제 omni-channel 상거래와 TradeGlobal Holdings와 Jagged Peak의 서비스를 통합한 플랫폼인 SP eCommerce를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음
 - SingPost의 Wesseler사장에 따르면 SingPost는 현재 매년 30억 달러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아태지역 전자상거래 시장을 포함하여 18개국 50개 이상의 유통센터에서 화물을 처리하고 있음
 - 중국의 온라인 기업인 알리바바(Alibaba) 그룹도 아태지역의 전자상거래 물류 플랫폼 확장을 목적으로 SingPost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SingPost 지분의 14.51%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알리바바는 SingPost의 자회사인 Quantum Solutions International의 지분을 34% 획득했는데, QSI는 10개국 이상의 아태지역에서의 전자상거래 물류, 창고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SingPost가 지분 66%를 보유하고 있음
 - SingPost는 지역 우편서비스를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허브 서비스로 신속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QSI 및 다른 자회사같은 협력사들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자료 : www.joc.com, 2015.2.6.

이홍원 연구원
051-797-4783, hongwon@kmi.re.kr



인도, 항만인프라 확장 계획 발표

- 인도 해운부(Ministry of Shipping)는 2015~2016년 기간 중 인도 주요 12개 항만 인프라 확장을 위해 약 21억 달러(USD)를 투입할 예정임
 - 항만 시설 확장이 완료되면 연간 1억 6,200만 톤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인도 해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확장 계획은 기존의 항만 시설 현대화를 통해 화물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언급함
 - 특히 단순한 항만 시설 현대화가 아닌 인도 항만 시설을 국제적인 기준까지 향상시키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덧붙임
- 12개 대상 항만들의 2015년 2~4분기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3.2% 증가한 4억3,335만톤을 기록했다
 - 2015년 2~4분기의 철광석 처리량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37.9% 감소한 반면, 컨테이너, 석탄, 비료 제품은 각각 1.5%, 9.4%, 5.8% 증가를 기록했다
- 인도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칸들라 항만은 2015년 2~4분기 7,387만톤을 처리했음
 - 이 외에도 이파라딕항 5,513만톤, 자와할랄 네루항 4,823만톤, 뭄바이항 4,639만톤, 비사카파트 남항 4,224만톤을 기록했다
- 인도 해운부는 항만 효율성과 생산성을 국제적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14년 인도 내 주요 12개 항만을 대상으로 총 15억 6천만 달러를 투입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155만톤의 처리능력을 향상시켰음
 - 1차 확장 계획을 통해 12개 대상 항만 중 VOC(V.O. Chidambaranar)항만과 콜카타(Kolkata)항만을 제외한 10개 항만은 수심 14m를 확보하게 되었음
 - 이 외에도 모무가오(Mormugao)항과 카마라자항의 경우 초대형 선박의 접안을 위해 준설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자료 : www.sea-web.com, 2016.1.30.

손보라 연구원
051-797-4781, bora62@kmi.re.kr



물류시장동향

유럽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USS), 화주들에게 비용증가 부담

- EU에서 필수 통관(Clearance Mandatory)에 대한 금융 보증(Financial Guarantees)을 도입할 예정임
 - 이로 인해 화주들은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음
- 유럽 신관세법은 기존의 유럽공동체관세법(Community Customs Union; CCC)을 전면 대체하는 것으로,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 특히,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자율성 확대 및 전자통관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둠
 - 화주는 AEO 제도에 가입할 경우 통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도 AEO 관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AEO 공인제도의 구조를 확정해야 할 것임

자료 : Schednet, 2016.2.11.

김주혜 연구원
051-797-4779, joohye915@kmi.re.kr

2016년 1월 우크라이나 레니 항 물동량 전년 대비 36.4% 감소

- 2016년 1월 우크라이나 레니(Reni) 항의 처리 물동량은 4만 7,00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4% 감소함
 - 액체화물은 1만 2,000톤으로 2배 증가한 반면, 건화물은 3만 5,000톤으로 48.8%나 급감함
 - 주요 처리 품목인 광물질은 1.8배 증가한 1만 1,000톤, 석유는 5배 증가한 1만 톤, 기타 건화물은 1만 7,000톤을 기록함
- 레니 항의 물동량 처리실적이 감소한 주요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루블화 약세 등으로, 흑해지역으로의 기계류 등 수출화물과 여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흑해 연안 오데사에 위치한 레니 항은 화물 처리시설과 페리 접안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항만의 3개 화물 처리시설 중 제1·2시설에서는 벌크화물, 제3시설에서는 일반화물을 주로 취급하며, 화물 환적복합시설도 운영하고 있음

자료 : www.portnews.ru, 2016.2.15

황윤희 연구원
051-797-4786, hwangyh@kmi.re.kr